

# 전주세계소리축제로 시원한 여름나기

개·폐막공연 전북예술·예술가 주요 키워드로 축제 방향성 맞는 제작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가 올해 여름 축제로 변화를 꾀하며 2024 소리축제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개·폐막공연은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올해 소리축제의 방향성에 맞게 제작 공연을 선보인다. 개막공연 〈잡색X〉는 임실필봉 풍물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풍물굿이 벌어지는 장소들을 현대극장이라는 공간으로 가져와 연극적인 방식으로 풀어낸다. 음악의 필수 요소인 '잡색'을 민중으로 확장해 표현하기 위해 전북 도민 참여자 50여 명을 모집, 이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는 1995년

8월, KBS 음악 프로그램 'KBS빅쇼'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작품으로, 기록물로서의 관소리 공연으로 의미가 깊다. 두 명창의 소리와 함께 전북 지역의 실력 있는 젊은 소리꾼 10여 명과 KBS국악관현악단의 수준 높은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해진 공연으로 펼쳐진다. 이어 16일에는 세계적인 두 예술가의 무대로 소리축제와 전북ds 공동기획 〈정경화&임동혁 듀오 리사이틀〉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린의 거장 정경화와 세계 3대 콩쿠르를 휩쓸며 혜성같이 떠오른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첫 듀오 무대로 벌써부터 클래식 마니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계속해서 18일에는 16년 만에 전주를 찾는 단단한 실력의 중견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 예술가들의 열연으로 펼쳐질 호남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녹두〉'도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다. 한국 근대사의 여명을 연 동화농민혁명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호남오페라단이 새롭게 시도한 무대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며, 티켓 문의는 전화 1544-1555, 공연 문의는 063-232-8395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통한지 제조업체 생산기반 시설 개선 지원 나선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총 6곳 대상 실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전주 관내 전통한지 제조업체 생산기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24일 전당에 따르면 '전통한지 제조업체 생산기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의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개선해 전통한지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신규고용에 대한 어려움과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해결한다. 나아가 전주 한지의 품질 향상과 전통한지 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전당은 전주관내 전통한지 제조업체 6개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최종 수혜업체는 전주한지장 4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 총 6곳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궁한지는 초지시스템 △대성한지는 외발지동 △성일한지(최성일 전주한지

장)는 원료보관 저온저장시스템 △용인한지(김인수 전주한지장)는 원료분배함 △전주전통한지(강갑석 전주한지장)는 한지원료 이송 펌프 △천일한지(김천중 전주한지장)는 건조 설비 등이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한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 전주한지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미술체험 '백드롭 페인팅' 운영

캔버스에 자유로운 색감과 질감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나가는 힐링 아트 클래스가 마련됐다. 24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에 따르면 8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미술체험 '백드롭 페인팅'을 오는 8월 3일 오후 1시와 4시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운영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예약은 오는 26~31일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백드롭 페인팅'이란 연극에서 무대 배경인 페인트로 칠한 커다란 그림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크릴 물감에 다양한 질감의 보조제를 섞어 거친 질감을 표현하는 페인팅 기법을 말한다.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이러한 미술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데, 2~3가지 색상의 물감을 직접 선택한 후 캔버스에 나이프를 사용해 두껍게 칠하면서 탄력 있고 두터운 질감을 표현해 작



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공유화음실 수시대관 접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2024년 공유화음실 수시대관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재단에 따르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동문거리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유화음실은 94.9㎡(28.8평) 규모로, 음향시설을 비롯해 강의용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접수는 연말까지 상시 진행되며, 전주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라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관료는 무료다. 대관 가능 기간은 연말까지며,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관은 주말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대관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운영된다. 전일 대관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시로 대관 접수 및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관 신청 전, 전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대관 잔여기간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립예술단,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8월 10일까지 매주 목·금·토 9일간 다양한 음악 장르 공연 진행

남원시립예술단(시립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은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 9일간 사람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여름 휴가철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무더운 더위를 타파 해줄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공연 프로그램은 국악, 농악 합창 등 다양한 음악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민속악 갈라 공연인 △민속악(관소리, 무용, 기악합주, 민요 등) △퓨전국악공연(관현악) △창극공연 등 6회, 남원시립농악단은 △관곳공연 △타악 퍼포먼스 공연 2회, 시립합창단 합창 공연 1회 등 총 9번의 무대가 펼쳐지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나 063-620-6162로 문의하면 되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야외공연 특성에 따라 우천 시 취소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풍성하고 다양한 공연들로 이루어진 2024년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은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시립예술단의 매력을 선사할 것이며, 앞으로



로도 일상에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고품격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된 심상 치유 프로그램 '꽃 청춘, 도민을 위한 나라'를 성황리에 마쳤다.

#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심상 치유프로그램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된 심상 치유 프로그램 '꽃 청춘, 도민을 위한 나라'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꽃으로 태어났어', '힘이 있는 하루' 등 한 사람의 인생 주기에 관한 주제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회차마다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해 '나'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고 각각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참여한 한 수강생은 "원에 체험을 하는 동안 평소 애용하던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을 하지

않고 온전히 꽃과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며 "꽃도 각각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유미경 동암차분학교 원예전공과 강사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수요응답형 강좌 '소담소담(小談談談)'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